

---

# 19세기 판소리 속 가십의 일 양상 : <계우사>를 중심으로

---

박혜인 (남서울대학교)

## I. 비공식적 담론으로서의 가십과 <계우사>

가십(Gossip)은 그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공동체 속에서 종종 '향유되던' 비공식적 담론이다. 가십은 보통 루머(Rumour), 풍문(風聞), 소문(所聞) 등의 용어와 종종 혼용되기도 하는데<sup>1</sup>. 사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비공식적 담론이라는 점에서 앞서의 용어와 명확하게 구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십은, 모든 루머나 소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되었으며, 그것이 항상 중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sup>2</sup>. 가십에 대한 그동안의 정의는 “소문, 험담, 촌평, 근거 없는 거짓말, 한가한 수다 또는 그런 수다에 동참하는 사람(최정현, 2018, 331)”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 무엇인가를

- 
1. 조지프 엡스타인은 루머와 가십의 공통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루머와 가십은 종종 혼용된다. 앞으로도 말한 것처럼 심리학정보서비스(psyc-INFO) 용어사전에서도 ‘루머’를 ‘가십’의 하위에 두어 설명하고 있다. 루머처럼 가십도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거래이다. 이 둘은 ‘비공식적 의사소통’, ‘비격식 의사소통’, ‘풍문’이라 불리기도 한다.”(조지프 엡스타인 2013, 39)
  2. 가십과 타인에 대한 관계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가십에서의 ‘개인-타인’의 이야기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루머와의 차이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니콜라스 디폰조는 루머와 가십의 차이를 들면서 그 중 하나로 ‘개인의 사생활’이 필수인지에 대한 여부를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루머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가십은 항상 이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된다.”(니콜라스 디폰조·프라산트 보르디아 2008, 40)

듣는 것(조지프 엡스타인 2013, 19)”, “세심하게 선별된 특정인물에게만 이야기되는, 다른 사람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위의 책, 19~20)”,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위의 책, 24)”, “개인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사교적 이야기(니콜라스 디폰조 외 2008, 34)”,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른 사람에 관한 사건을 관찰하면서 얻게 된 정보(위의 책, 34)”, “어떤 사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만한 소문이나 신문, 잡지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다룬 기사” 등이다.(허정혜·장영혜 2015, 3) 이처럼 시대와 매체의 변화에 따라 가십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가십은 공동체 내부에 있는 한 사람의 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그 사람에 대한 집단의 관심사를 드러낸다. 가십 대상에 대한 집단의 관심은 보통 부정적인 평가로 끝나는데, 그러한 태도 속에서 가십 대상 및 향유자가 속한 집단이 가진 사회적 규범의식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십은 진지한 담론이 아니라 가십을 공유하는 이들끼리의 사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담론 자체가 심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유희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sup>3</sup>.

가십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담론이기 때문에 수다, 잡담 등의 비공식적 형식을 통해 향유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뉴스나 기록 문학 등, 비교적 공식적 담론만을 다뤘었던 형식에서도 가십적 성격이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관소리와 같이 구비적 속성이 강한 형식일 경우 가십이나 루머 등 사회에서 공인되지 않는 담론의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관소리 향유층이 양반으로까지 확대된 이후 전승관소리들은 ‘충’, ‘효’, ‘열’과 같은 유교이데올로기의 전달매체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관소리는 여전히 사회에서 공인되지는 않았으나 당대 평민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담론을 표현하는 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변강쇠전〉, 〈배비장전〉, 〈계우사〉 등으로 남아있는 실창관소리의

3. 이와 같은 가십의 특성은 다음의 논의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조지프 엡스타인(2013), 니콜라스 디폰조·프라샬트 보르디아(2008), 클라우스 틸레 도르만 (1995), 『수다의 매력』, 전옥례 옮김, 새로운 사람들, 1996.

서사에서 더욱 드러난다. 그 중에서 본고는 19세기 도시 향유층의 세대를 잘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은 〈계우사〉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려 한다.

〈계우사〉는 실전판소리 〈무속이타령〉과의 연관성을 보이는 국문 필사본 소설이다. 현재 1890년(경인 윤이월 일)에 필사된 유일본<sup>4</sup>이 있으며, 작품 내에 만년의 송홍록이 판소리를 부르는 모습이 묘사되는 것으로 보아 철종 말 또는 고종 초(1860)로 추정되고 있다(김종철 1991, 257~258). 〈계우사〉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보면 1)판소리로서의 특징 및 〈알짜타령〉, 〈무속이타령〉, 〈알짜타령〉, 〈이춘풍전〉과의 관계 설정<sup>5</sup>, 2)(실전 판소리 연구 속에서) 실전된 이유<sup>6</sup>, 3)향유층에 대한 연구<sup>7</sup> 4)19세기 경제 상황에 대한 연구<sup>8</sup>, 5)하층여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인물형 연구<sup>9</sup>, 6)가정

4. 〈계우사〉는 원광대 박순호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데 『원광대학교 박순호 교수 소장본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 1집(1985)에 영인본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김종철이 「계우사」 『판소리 연구』 5, 판소리학회, 1994)에서 교주 및 주석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때 『원광대학교 박순호 교수 소장본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에서 영인되지 않은 곳까지도 보충하여 넣었기 때문에(김종철, 「계우사」, 판소리 연구 5, 466 참조) 본고에서는 해당 텍스트를 인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5. 최원오(1994), 「〈무속이타령〉의 형성에 대한 고찰-장편가사와 관련하여」, 『판소리연구』 5, 판소리학회; 인권환(1996), 「실전 판소리 사설 연구-〈강릉매화타령〉, 〈무속이타령〉, 〈옹고집타령〉을 중심으로-」, 『동양학』 2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김준형, 「계우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27, 한국문학회 2000; 조광국(2000), 「19세기 향락상에 대한 평·천민 여성의 자의식 구현의 한 양상-〈이춘풍전〉 〈무속이타령〉 〈삼선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한창훈(2009), 「판소리 문학사에 있어서 〈계우사〉의 위상」, 『국어문학』 46, 국어문화회; 배선희(2002), 「〈계우사〉와 〈이춘풍전〉 대비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학 석사논문; 박일용(2002), 「구성과 더듬형 사설 생성의 측면에서 본 판소리의 진승 문제-〈배비장타령〉 〈강릉매화타령〉 〈계우사〉의 예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4, 판소리학회; 박진아(2013), 「〈계우사〉의 형성과 문학사적 위상에 관한 고찰」, 『국학연구론총』 12, 태권국학연구원.
6. 인권환(1996), 남상윤(2002), 「실전 판소리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박일용(2002), 김영주(2010), 「19세기말 20세기 판소리 변모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7. 김준형(2000), 배선희(2002), 최혜진(2009), 「〈계우사〉의 작품 구조와 향유층의 욕망 실현」,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김영주(2010).
8. 김종철(1996), 「〈무속이타령〉과 19세기 서울 시정」,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유귀영(2011), 「〈계우사〉에 나타난 ‘가정’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 『어문론총』 54,

문제와 관련한 연구<sup>10</sup> 등이 있다. 〈개우사〉의 내용은 왓짜 무숙이의 향락적 생활과 의양의 속임수를 통한 계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무숙이는 역사 속에서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주로 왓짜에게 쓰이는 ‘무숙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우사〉의 향유층으로 여겨지는 19세기 중인부호층 중의 한사람이라는 점에서 향유층의 집단 내 인물과도 대응이 가능한 존재이다. 또한 기생으로 인한 폐가망신이라는 소재는 〈개우사〉 외에도 〈배비장전〉이나 〈오유란전〉 등 다양한 작품에서도 등장할 정도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왔던 일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우사〉는 비록 허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한 허구의 서사라 할자리도, 주인공인 무숙이와 같은 집단인 19세기 중인층의 가십으로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본고는 〈개우사〉 속에서 집단의 ‘가십거리’로 향유되는 ‘타인의 사생활’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를 통해 당대 향유층의 관심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개우사〉의 판소리적 성격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II. 왓짜 김무숙의 서사를 통한 19세기 가십

### 1. 가십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잡놈’

〈개우사〉 서사의 주인공인 무숙이는 당시 19세기 존재했던 전형적인 왓짜패 중의 한 사람으로, 당시 향유자들이 흔히 연회나 창루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주변의 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이태화는 〈홍부전〉과 〈춘향전〉 등에서 등장하는 왓짜들의 이름들 속에서 ‘무숙이’의 이름이

한국문학언어학회, 최혜진(2009).

9. 조광국(2000), 배선희(2002), 최원오(2003), 「조선 후기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하층여성의 삶과 그 이념화의 수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이수정(2010), 『세태소설 속 여성인물 형상 연구- 이춘풍전 개우사 옥단춘전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유귀영(2011).

10. 최원오(2003), 이수정(2010), 유귀영(2011).

등장하는 것을 들며, 〈계우사〉의 주인공 ‘무숙이’라는 이름이 실명이라기보다는 별명일 것이며, 이는 왈짜들의 동류의식을 보여주는 기표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태화 2005, 165~198). 〈계우사〉의 초반부에서도 김무숙은 당시의 왈짜패 중 한 명으로 처음 등장한다.

시화세풍하야 충신효즈난 죠정의 가득하고, 방 " 곡 " 빅성더른 격양  
가 풍유쇼리 처 " 의 낭즈흐니, 국세가 이러커든 오입탕긔 읍실손나.  
청누주가 곳 " 마도 빅반이 낭즈흐고 시쥬 가스 호결남즈 금홀 기리  
읍서는디 이 썩은 어니 쥔고. 전천화류 만발흔디 청누고각 노푼 집의  
호낭흔 왈즈더리 허다히 못넌 중의, 남북촌 뒤써러셔 디방왈즈 김무  
숙이 지체로 논지흐면(419)

서사를 보면 당시 청루 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오입통괘, 호결 남자, 왈짜들을 언급하면서 그 중 하나로 대방 왈짜 김무숙을 소개하고 있다. 〈계우사〉에서 무숙이는 주변 인물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는 주변과 ‘동화되어 있는’ 무리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up>11</sup>, 무숙이는 당대 중 인부호층에 속해있는 전형적 인물일 뿐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부와 향락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물로 나온다. 그 외에도 〈계우사〉에서는 그가 무리 중에 참여하는 장면을 그리면서도 “무숙니 드러간니 승하 총중 왈즈 중의 으거흐리 뉘 잇스며 집탈흐리 뉘 잇슬가.(422)”, “흐른 톱도 버신 물식 남중호결 분명흐고, 능쇼능디 출 " 흥 즌지미을 압두흐리 뉘 잇슬가.(422)” 등의 평을 덧붙이며 그가 왈짜패 중에서도 꽤 중심을 차지하는 유명 인사임을 지적하고 있다. 의양에게 무숙이와의 결연을 원하는 한 왈짜 또한 “한양성 억만호의 썩도라 니르기를, 남중의는 무숙니요 여중의는

11. 무숙이를 왈짜집단 중 하나로 다루고 있는 〈계우사〉의 시각은 이후 무숙이가 그와 비슷한 왈짜패와의 수작 중에 의양의 소문을 듣고, ‘그들과 함께’ 의양에게 가는 모습이나 훗날 회과한 무숙이가 품을 팔다가 만난 오입쟁이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의양니라’ 그런 맛당흔 서방임 비약흐면 원앙실슈지탄으로 후회되리 (427~428)와 같은 말로 무숙이의 유명세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였다. 또한 무숙이에 대해 김종철은 그가 18세기 이후 여항부호들의 향락적 예술 향유의 추세 중에서 배태된 소비형의 인물로, 그 당시 흥행적 예술에 상당히 정통한 점에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김종철 1978, 73). 무숙이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중인부호이자, 그 재력이나 향락에 있어서 당대 유명인사가 될 정도의 삶을 영위한 인물이다. 때문에 19세기 새로운 경제 질서 속의 소비와 향유를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당대 한양을 중심으로 한 도시사회 속 가십거리로 등장하기 알맞은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는 <계우사>라는 서사의 내외에 존재하는 주변 등장인물, 향유층이 모두 무숙이와 같은 중인층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공동체에서 가십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보통 주변인들과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내부의 사람으로 가십 공유자들의 지인이 대부분이며 혹은 대중들이 잘 아는 유명 인사가 되기도 한다<sup>12</sup>. <계우사>의 기반인 <왈짜 타령>의 내용이 특정 기생을 차지하려는 ‘불특정’ 왈짜패의 이야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숙이는 유명 기생과의 결연과 그 후의 사건을 겪는 ‘우리들 중의 누군가’로 여겨지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최원오, 1994, 303). 또한 <계우사>에서

12. 가십의 대상과 관련한 특징은 다음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십은 어떤 사람을 놓고 그가 없는 자리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다. 가십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가십을 나누는 사람들은 사교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으며, 화제의 대상자는 다들 잘 아는 인물로, 그가 앞에 없을 때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가십은 “친분 공격”의 중요한 무기이다.” 니콜라스 디폰조·프라샛트 보르디아(2008), 같은 책, 36쪽.

“수다를 동반한 새로운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비단 이웃들의 일상 생활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다가 사회통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람들 간에 동일시의 기회로 작용하는 것은 소규모의 사적인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 앞에서도 가능하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명인사’로 알려졌거나, 대중매체에 소개되어 이름 석 자 대면 할 만한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독자 혹은 시청자들의 관심은 놀랄 만큼 크다” (Thiele-Dohrmann, Klaus 1996, 131)

무숙이는 다른 이들과 향락을 공유하고 있던 인물이자 한양에서 이름날 정도로 유명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 또한 작중 인물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던 당대 〈계우사〉 서사의 향유자들 사이에서 가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서사 내의 인물들 사이의 가십의 주인공이 되어있는 무숙이는, 정작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 〈계우사〉에서는 그의 부귀뿐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그의 재능을 언급하며 “인기(人器)가 뛰어나고, “지조(才調)가 절등(絶等)”하다고 말한다.(420)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집안 어른의 가르침을 저버린 채 색주가만 찾아다니는 행동을 덧붙이며 “저런 좁놈 또 잇슬가.(420)”하고 욕하기도 한다. 소설 속의 양가적 태도는 서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 또한 무숙이의 첩과 친구는 “요 즈식이 좁죽식이아 쓸기 읍년 김무숙아. 알심 만코 멋 이는 일 너와 습싱 원슈로드. 안고슈비 네 큰 슈단 네 집 쳐즈 피가 난니 가성고쳐원성고을 널노 두고 이르미리(441-442)”, “에라, 너 그만 쥬거라. 너 스리 쓸 곳 인나, 널노 두고 글짓기를 계우스라 노릿지여 소리 명충의게 전흐리라(461)”와 같은 부정적 평가를 숨기지 않는다. DiFonzo에 따르면 가십은 평가에 대한 이야기이며, 대부분은 부정적이며 경멸적인 내용이 지배적이다(니콜라스 디폰조·프라산트 보르디아 2008, 38). 이러한 속성은 천하 잡놈 무숙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시작한 〈계우사〉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계우사〉는 서술자의 직접 서술 및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 김무숙에 대한 부정적, 경멸적 시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가십의 속성에도 부합한다.

## 2. 판소리적 표현으로 구체화되는 부자의 패가(敗家)

### 1) 소문으로 전해지는 무숙이의 가십

앞서도 언급했듯이 〈계우사〉의 주인공 무숙이는 작중에서 한양 왈짜들 중의 유명 인사로 나오는데, 이는 무숙이의 부유함과 그를 바탕으로 한

향락적 생활 때문이었다. 무숙이의 삶은 작중 인물 중에서도 화제가 될 뿐 아니라 <개우사> 서사를 향유하던 당대 중인부호층의 관심을 끌 만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대방알짜 김무숙의 화려한 삶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이후 모든 것을 잃고 기생 의양의 머슴노릇을 하는 추락의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당대 중인층 가운데에서도 있었을 법한 ‘한 대방알짜의 부와 추락과 관련한 사건’은 <개우사>에서 평양 기생 의양과의 결연과 향락, 그리고 패가(敗家)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작품을 이루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소문’의 형식과 함께 다가오게 된다.

(1) “숨지팔난 고락풍진 모도 득 적거누고 의목호스 즈봉범절 거거동지와 프스보스 드문 보빅 조흔 노리기 금옥궤물 전금 준마 보라미 일등미시 원니 읍시 다 노라 보고 가되 세간 방안 괴물 그림죵케 노나 신니 무슨 혼니 잇슬손나. 어셔라 더져두고 이 노름 저 노름 유순 هنگ이 술 먹기와 풍유 비반 조흔 가곡 미식 चु심 망종 놀고, 집산 슈도 하오리라.” <중략> “요시 드른니 평양 기성의 양이가 화기동 경주인 집 안사랑을 치우고 드러 여실패신헐다 쇼문니 낭즈 혼되, 얼굴은 쇼군니 요 티도는 귀비라. 만호중안 연쇼더리 밋쳐 발광 다 단니되 인의예지 노푼 마음 고절헐기 죽니 읍서 쯤시 셔방 안니 웃고 탁인탁신헐란단니 게 가 혼 번 노라보면 웃더헐냐?”(425)

(2) 무숙이 거동 보소. 즈당 줍핏 초썩처름 아리목의 우둑권이 안저 싱각헐니 즈썰 해썰의 한 일리 망지불스 닉일리아. 입을 거시 읍서논니 막덕기 큰저고리를 허리 나게 입고. 의양의 썩러진 가리바디을 입고 안저 허리가 몹시 실린 즉, 기가죽을 두루고 화리썰만 썩고 안저 신이 더병머리 눈을 각금 가리운이 더강이를 닉두르며 손까락으로 가리미를 타고 밀저름으로 직고 더자단임으로 즈득 동여쇼논. 비가 곱파 안저신이 천헐 즈놈의 으른이라. <중략> 무숙기와 갖치 노든 더 전별감 김철갑이 이 소문을 웃디 듯고 무숙기 망신을 시기라고 당” 흥

의 중초립의 즈웃 ” ” 드러□□□□ “□□□□ 인년야?” 무슈기 북스리  
 위 골방으로 드러간이 김별감 썩□□□□ 열고 의양이 보며, “쥬인  
 평안한지. 글늬에 얼골리 그릇되□□□□□□ 저리 지치늬, 이 아히는  
 어디간늬?” 의양이 우숨 춤고, “큰 톱의 가서쇼다.”(449~450)

인용문(1)은 무숙이가 의양에 대해 듣고 그녀의 서방이 되고자 찾아가는 부분으로 이를 보면 이미 평양 기생 의양의 명성은 장안에까지 미쳤던 것을 알 수 있다. “만호장안 연소들이 미쳐 발광 야단이라”는 언급처럼 기생 의양은 모두가 탐내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인용문을 보면 무숙이가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된 계기 자체가 그의 부유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거듭된 향락으로 웬만한 보석과 음식, 미인에는 싫증이 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거하게 한 번 놀아보고자 한 끝에 당대 유명한 기생을 찾아가게 된 것이다. 이를 보면 장안 부자 김무숙이 결국 그녀의 기부(妓夫)가 되어 함께 즐기게 된 사실 또한 당대 월짜들 사이에서 이미 이슈화된 사건으로 이야기되고 있었을 것이다. 당대 최고 기생인 의양과의 결연은 사실상 그의 부(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당대 거리에서 회자되었을 무숙과 의양과의 결연은 곧 ‘모두가 원했던 미인을 얻을 수 있었던 그의 부유함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양과 무숙의 향락에 대한 당대의 ‘소문’의 존재는 이후 무숙이의 사치를 비판하는 의양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녀가 무숙과, 무숙의 본처에게 하는 말을 보면 “세승스람 중안 공논 날노 흥냐 방탕흥여 남용남비흥는 즐노 드럽고 ”약지설 안저 별악 님 마질가.(441)”, “서방임니 슈신을 모로시고 날마다 파려흥냐 음어쥬식의 불고가순 흥니 불과 일연지늬의 천금만직을 모도 다 탕퓌 흥고 필경은 오스지경니 되올진디, 우호로 풍스를 보전치 못흥고 지춘은 아기가기씨 신명과 어린 직식을 탁신무로지경니면 세승니 모도 일너 망신평가와 오몽득담은 모도 의양의게 밋칠진디 이 안니 원통흥 오.(443)” 등과 같이 무숙이의 사치함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용문(2)는 무숙이가 모든 돈을 잃은 뒤 계속되는 빚독촉에 결국 가지고 있는 옷까지 모두 내주고 남들의 누더기 옷을 주워입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린 상황을 그리고 있다. 그가 이토록 몰락해버렸다는 소문은 벌써 그의 벗이었던 대전별감 김철갑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는 무숙이 ‘망신’을 시키려고 직접 가서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려고 한다. 친구의 행동은 가십에 대한 향유자들의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어느 사회 시대에든지 타인의 추락은 당대 사람들이 즐겨 이야기하던 가십거리 중 하나였다. 〈계우사〉에서처럼 부자가 기생에게 빠져 재산을 모두 탕진한다는 내용 또한 이미 조선시대 전반에서 실제적으로도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했다. 무숙이의 패가(敗家) 또한 그가 가장 감추고픈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더더욱 관심의 대상이 된다<sup>13</sup>.

## 2) 판소리적 표현양식을 통한 강조

무숙이의 사치와 패가에 대한 향유자들의 관심은 〈계우사〉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계우사〉는 〈무숙이타령〉을 바탕으로 한 소설정착본이기 때문에 다른 판소리계 소설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듯이 소개”하거나, “상황이나 사태를 반복하여 제시하거나 서술하는 등”의 “율문화된 반복 서술문체”로 표현된 부분이 나타난다(서봉문 2009, 212). 특히 향유자들의 관심사라 할 수 있는 무숙이의 사치와 패가(敗家)와 관련해서는 나열, 반복과 같은 표현을 통해 훨씬 구체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일용은 〈계우사〉에서 “청루로 올라가는

13. “가십은 속성상 외과적이다. 외과 수술처럼 가십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위(자존심, 수치심, 창피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등)를 파헤치기 위해 우리의 자아를 보호막처럼 감싸고 있는 사교적인 피부를 도려내려 한다. 가십은 덜 인성적이지만 더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게 만든다. 사회이론가인 어빙 고프먼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아 표현〉이라는 책에서 각광 받는 공적인 자아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대충 머리를 묶은 채 피안하게 무대 뒤에 있는 사적인 자아를 구분했다. 가십은 바로 이러한 내적이며 허영심 강하고 환상을 만들어 내면 측은하고 그다지 사랑스럽지 못한 자아를 드러내려 하며, 그것을 다루려고 한다. 가십은 무자비하다.”(조지프 엡스타인 2013, 300)

대목의 무숙이의 차례, 어느 왈짜의 술타령, 의양의 집치레, 상치레, 무숙의 품 파는 대목 등 소리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더듬형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박일용 2002, 18). 이들은 모두 무숙이의 향락과 추락 후 그의 고난을 강조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무숙이와 의양의 결연과정에 해당하는 〈계우사〉의 전반부는 무숙이에 대한 소개 및 의양과의 결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일용(2002, 18)은 그 가운데 “무숙의 소개 대목, 무숙이 개심을 하고 청루로 가서 노는 대목, 의양의 집에 가서 노는 대목, 의양이와 만나서 의양이의 요구에 의해 하게 되는 유산놀음, 선유놀음” 등을 통해 그의 재력 및 유희과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sup>14</sup>. 그 중 무숙이가 의양을 위해 집을 사 꾸미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집을 사는 대목에서 사건의 진행이 멈추고 집 안에 있는 여러 화려한 물건들을 나열되고 있다.

화기동 경주인집 오천양의 결가혼야 너스지위 토역중이 청우정 스랑  
 압희 와룡으로 담을 치고 석슈장이 불너드려 숙석으로 면을 치고 전후  
 좌우 죠흔 화계 ①모란 작약 영산홍과 들춤 축뵝 즐늬무며 금스화  
 죽연 포도화 축죽향연브러있다. 옥분의 시문 미화 녹죽 창송 천고절  
 을 여기저기 심어노코 스게 철죽 향일화며 난초 파초 죠흔 풍을 디분  
 의다 심어노코 향원 춘식 어린 곳의 화중근즈 연화꽃 너울 ” ” 넘노  
 난 듯 흥도 벽도 일지기화 일단선풍 괴이히고 치즈 동뵝 석유분의  
 유즈 화분 더욱 좃타. 스신 흥츠 부탁혼야 ②오식 부어 유리항의  
 빅연쥬 잉무쥬며 학두루미 느릭 벌여 쥬루 ” 길늬 길드리고 완즈담  
 일광문은 가진 쥬병 트러 익고 청쌔짜리 문 지키고 빅수혹면 죠흔  
 기은 천석 누리 노적 밋뵝 즘을 저여 길드리고 억디 황우 쇼 두 마리

14. 박일용은 이처럼 판소리 청중으로서의 식상해질 수밖에 없는 유희적 모습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계우사〉가 기방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유희적 장면 이외의 사실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밝혔다. 이는 〈계우사〉에서 그만큼 강조·과장되고 있는 부분이 무숙이의 향락에 대한 것임을 보여준다. (박일용 2002, 18 참조)

양지 바로 마구 지어 그득하게 세워 두고 방안 치레 차릴 적의 ③각중  
중관 당지도며 미화류 방중 기천도를 흥승 보게 거러두고 디모 병풍  
습국 그림 구운몽도 유향도며 관동팔경 조흔 그림 각병의 다 그리고  
④화류평승 금포서안 습충들미 각계슈리 오시목 가진 문갑 즈기흥농  
반다지며 디모척승 순호필통 ⑤스서습경 원갓 칩을 적성권축 쓰와  
두고 ⑥돈괴방중 호치방중 왜포 평스 모괴중을 은근니 드리우고 ⑦평  
싱 머글 유밀과며 ⑧평싱 쓸 당춘약과 ⑨진옥 식긴 별춘화도 ⑩청강  
적 빅강적과 순호 "박 청빅옥 모도 드러 원갓 가화칠보 식겨 유리  
화류중을 쏘여 너여 보기 죠케 노와 주고 천은 요강 순금 티괴 빅통  
치셔리 빅문 설홉 식별 갓통 디강선의 철침 퇴침 디안석의 디체경  
쇼체경의 오도독 주석 늦춧디의 양초 박어 노와 두고 유리 양각등을  
달고 ⑫홍천 빅전 몽괴전과 진지 보초 모탄 □□ 각식금침 슈실별과  
⑬십승진품 가진 픽물 조흔 모물 거러노코 ⑭순승 녹용 부경즙탕  
경옥고 팔미환 스물탕 쌍화탕을 중복하고 은금보화 비단 포목 구스  
갓치 쓰아노코 스절 의복 삼시벌의 멀미중니 절노 나고 "양진민 어육  
포식 보기 심승 쓰여신니 ⑮썸바귀 누물 씨라귀 된중덩니 순치나물니  
식맛시라 의식니 그림즌코 근심 격적 읍셔신니 석승 의돈 부러할가.  
호화로니 지느간니(435~436)

인용문에 나열된 집 안 모습을 보면 집에 대한 묘사라고는 하나 온갖  
화초(①)와 다양한 동물(②)뿐만 아니라 그림(③), 가구(④), 기물(⑥), 보물  
(⑩, ⑬), 책(⑤), 옷감(⑫), 음식(⑦), 약재(⑧, ⑭)까지 묘사의 대상에 포함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은 대체로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닌 당춘약(唐春樂) 같은 최음제나 춘화까지도 포함되어있는  
(⑧, ⑨) 향략적 물품이다. 인용문 안의 물건들은 특히 '당대 일반 백성들에게  
익숙한 민중적 음식들(⑮)'이 오히려 새롭게 느껴질 정도라는 서술을 통해  
무속이가 향유하고 있는 부가 얼마나 기존 백성들의 삶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계우사>는 의양과의 유산놀이, 선유놀이의

장면을 통해서도 여러 화려한 놀음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무숙이의 사치를 크게 드러낸다. 〈계우사〉는 무숙이가 의양을 만난 뒤 사치하는 모습을 나열함으로써 무숙이가 향유하고 있는 부의 정도를 극단적으로 과장하고 있다. 〈계우사〉에서 드러나는 무숙이의 모습은 당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율짜들의 향락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여러 가사 및 판소리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확산된 사회현상이었다<sup>15</sup>

한편 〈계우사〉의 후반부에서는 앞서와 같이 창을 염두에 둔 율문적 서사는 없지만, 같은 상황의 반복 및 심화를 통해 서사의 재미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후반부 간에서 드러나는 사설의 변화에 대해 소설로 정착되면서 부연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략해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으나, 타인의 성공과 추락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십의 속성을 고려하면 무숙이의 부와 패가(敗家)에 대한 서사는 판소리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후반부 장면은 “허구적 상황을 설정하여 주인공을 풍자함으로써 골계미를 구현하는 장면들”로, “극적 장면 재현적 아니리로 연행 되었을 때에 제 맛이 나게 된”다는 박일용의 해석(2002,

15. “율짜들의 향락생활은 조선후기의, 간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의 가사들 중에는 이러한 정황을 담아내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규원가〉 내용 중에는 “삼삼오오 야유원의 새사람 나닷말가 곳 피고 날 짐은 제 정저 업시 나가 이서 백마공편으로 어대 어대 머므난고” 파고 해 사랑하는 임이 주사청루에 빠져 있음을 말해 준다 십이가사의 하나인 〈수양산가〉의 내용 중에 “오날같이 좋고 좋은 날 만나 아니 놀고 무엇 일하자느내라며 풍류놀이를 예찬한다. 〈노인가〉는 생전에 호걸스럽게 놀자는 것을 노래한 가사인데, 젊은 시절 친구들이 주로 율자에 드는 자들로 되어 있다. 율자 중심의 향락적 현상은 서울에서만 아니라 평양과 같은 대도 시에서도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던 많은 야담들 중에서 상인들이 기녀에게 재물을 갈취당하였는데, 그 공간이 주로 평양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춘풍전〉의 춘풍이 평양에서 추월의 하인이 되어 신세한탄을 하였을 때 빙반에서는 추월과 다른 한량들이 놀고 있었다 그들 역시 이춘풍 처럼 추월에게 재물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율자들이었다 〈무숙이타령〉의 의양은 選上되기 전 평양 같은 변화장에서 호걸남자와 오입뺑가 돈 잘 쓰고 노는 일을 보았다 또한 〈삼선가〉의 흥·유 兩妹는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서는 호화자재와 오입쟁이에게 시달렸다. 이상, 향락적 풍류생활의 내용을 담은 가사나 소설의 출현은 19세기 사회 일각에 양반 계층을 비롯해 평민부자층, 중서층 율자들의 향락상이 확산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조광국 2000, 228 참조)

18)을 참고했을 때 앞부분과는 다른 서술 방식을 통해 차별화를 주면서 해당 부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재산을 잃고 몰락한 무숙이가 의양의 중노미가 되어 심부름을 하는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중놈아!” 부른니, 무숙니 디답 안니 흘 슈 읍서, ‘예’ 흐즌니 실코, ‘무엇 흐라는’ 흐여서는 노녀홀 터니요, 맛비 나가 밀층 밋퇴 스며“어” 하니, 의양니 회를 너여 밀층을 싹 열쓰리며 “이 스람, ‘어’란니.” 무숙니 넉더드미로 바위여 “업더, 그러는 저러는 심부름니나 시기면 죠케 쑤면.” 의양니 심부름을 시기건디 부리 펼쩍 나게 시기겠다. “중놈아.” “어” “또 어 흐넌고나. ②중다름질 급피 가서 쑤미고기 스오너라.” “어, 그리흐지.” 순식간의 스온니, “고초가로 스오너라.” “어, 그리흐지.” “전초가로, 후초가로, 푼, 만을, 싱강 스오너라.” “어, 그리흐지.” “세슈 급피 흐켓신니 양치 소금 스오너라.” “어, 그리흐지.” “양식 괘고 나무 스고 싱선 비웃 스오너라.” “어, 그리흐지” “즈반 굴비 읍치흐나 살진 압탁 스오너라.” “어, 그리하지” “우리 중놈니 심부름은 밍우 줄 흐거든. 날 쇠기든 안니 흐겠다. “방골 근너가서 김선달떡의 편지 전코 돈 쥬기든 바더오너라.” 무숙니 기가 막켜 날과 죽마교우로 형제 갓치 지닌 붓의 집을 가라 하니 스춍불피니 스환을 웃지 흐여나 오를 계는, 너 스라 쓸 디 있나 쥬글 마음 각심하고 디답흔 연후의, 디문 밧 싹 나셔” 김선달 집 가라 하니 “개 무슨 망신인고,(459~460)

해당 장면은 중노미와 주인으로 관계가 역전된 무숙이와 의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으로, 여기에서 무숙이는 한때 자신의 기침이었던 의양에게 존대를 써야할 상황이 되자 그 남은 자존심에 “예”라는 말을 하기 싫어 “어”라는 말로 농치고 있다.(①) 하지만 그의 뼈뺀 언술은 정작 그녀가 시키는 심부름은 군말 없이 다 해가는 충실한 종으로서의 행동과 대조되고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옛 연인의 종이 되어야

하는 무숙이의 치욕을 더욱 부각시켜 주면서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한다. 이러한 설정에 대해 김중철은 “자신의 서방을 중노미로 부리는 사건의 설정은 대단히 독특한 방식이며, 또 당대의 관념으로는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무숙으로 하여금 굴욕적 체험을 하게 함으로서 개과천선케 하는 방법이 과격”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중철 1978, 81). 설정의 과격성은 무숙의 굴욕을 보여주는 목적이 단지 개과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굴욕 자체를 전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의심케 한다. 〈계우사〉의 의도는 그 굴욕적 상황을 반복하며 점점 심화시키는 서술방식에서도 드러난다. ②와 같이 의양의 종이 된 무숙이의 꾸미고기 사오기, 고춧가루 사오기, 여러 잡다한 살림살이 사오기 등으로 반복해 보여주면서 ‘모욕적 상황’을 독자들 앞에서 끊임없이 들추고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종의 모습으로 “죽마고우로 형제 같이 지낸 벗의 집”에 심부름을 시키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면서 무숙이의 치욕을 비웃는 듯한 상황을 제시한다.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여 제시하면서 해당 상황이 주는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계우사〉에서의 반복적 서술은 이 외에도 무숙이가 계속해서 빛을 갠아가면서 재산을 잃어가는 장면이나, 치욕을 참지 못한 무숙이가 몇 번이나 자살을 결심하다가 그만두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비슷한 상황의 계속된 반복을 통해 무숙이의 추락 과정을 더욱 과장되게 나타내고 있다.

서사에서 드러나는 나열과 반복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판소리계 소설의 보편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서봉문 2009, 212). 하지만 〈계우사〉에서 그 과장된 서술이 특정 부분, 즉 무숙이의 부와 추락 부분에 집중된 현상은 바로 그 부와 추락이 〈계우사〉 및 그 바탕이 된 판소리 〈무숙이타령〉의 향유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와 추락이라는 주제야말로 무숙이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계우사〉의 서사는 이 두 장면에 대한 서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의 서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sup>16</sup>.

### III. 계도와 유희의 양상으로 나타난 향유층의 태도

#### 1. 가십의 동기가 되는 질투와 동일시

〈계우사〉 전반부, 무숙이의 화려한 삶을 드러낸 장면에서 반복, 과장의 방법이 사용된 원인은 그에 대한 향유자들의 관심에 있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평양 제일 기생과 함께 온갖 향락을 즐기는 무숙이의 화려한 삶 자체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김무숙은 그의 ‘재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한양 바다의 ‘유명인사’가 될 수 있었다. 그가 주인공이 된 것 또한 그의 ‘재력과 ‘사치’로 인해서이다. 당시 사람들에게 〈계우사〉가 향유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무숙이와 같은 재력가이자 유명인사의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관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심의 끝에는 ‘자신들이 욕망하고 있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계우사〉의 향유자가 가진 관심사는 대중매체 속 유명인들의 사생활 공개에 관심을 보이는 현대 대중들의 생각과도 상통한다. “대중매체에서 다루어지는 유명인의 사생활 공개는 독자나 시청자의 욕구를 대리만족시키는 토대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독자나 시청자들은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상상했던 일들이 특정한 유명인에게서 실현되는 것을 만족스러워 한다.(클라우드 틸레 도르만 1996, 136)” 마찬가지로 19세기 중인사회 속 구성원들 또한 자신들이 원했으나 누릴 수 없었던 ‘부’를 향유하는 한 유명한 왈짜 무숙이의 삶을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계우사〉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장안갑부이자 대방 왈짜 ‘무숙이’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주인공에 대한 서사의

16. 이러한 점은 가십의 ‘예리화’로 해석할 수 있다. “예리화란 루머 메시지 중에서 특정한 세부 사항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강조 현상은 단순화의 결과로 발생한다. 다른 세부 사항이 제거되어 특정한 세부 사항에 예리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다. 〈중략〉 이때 이 단어는 과장되는데, 예리화는 과장이라는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한 명의 흑인이 4명으로 뒤바뀌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한 명의 흑인이 있었다는 생각이 부각되는 것이다.”(니콜라스 디폰조·프라산트 보르디아 2008, 179)

태도는 모두 ‘부정적’이었다. 서사 속에서도 무숙이의 사치는 결국 몰락의 과정을 거쳐 계도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가십의 대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가십과 관련한 논의에서 조지프 엡스타인은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이나 명성이 없는 우리는 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엄청나게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경향(조지프 엡스타인 2013, 302)”이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관심의 끝에 강력한 질투가 매달려 있으며,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 혹은 타고난 재능이나 미모를 지닌 사람의 추락에 관한 가십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란 없음을 아주 잘 알고 있다.(위의 책, 302)”고 지적한다. 〈계우사〉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못 가진 것’을 가진 ‘그들’은 동일시의 대상이 되어 대리만족을 느끼게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향유’하는 ‘남’의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향유자들의 질투로 끝나게 된다. 무숙이의 삶은 최고의 기생을 옆에 두고 각종 기물로 집을 꾸미면서 여러 놀음을 일삼는 삶으로,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한 향유자들의 질투는 이후에 이어지는 무숙이의 추락과 그에 따른 모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 2. 속이기 구조 속의 규범과 유희

〈계우사〉 속 가십의 주인공에 대한 향유자들의 동일시 및 질투의 태도는 작품의 구조나 성격에 있어서도 전후반부를 기준으로 분절된 양상에도 영향을 준다. 〈계우사〉는 무숙이의 부의 과시를 통해 19세기 도시 향유층의 세태를 잘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사치를 경계하라는 교훈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sup>17</sup> 〈계우사〉의 주인공에 대한 향유층 집단의 질투가 사치에 대한

17. 특히 분절된 서술구조와 내용상의 유사성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계우사〉와 관련 작품간 비교에 치중했으며, 〈계우사〉 자체에 대한 독자적/전체적 작품론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최혜진(2009)의 연구는 〈계우사〉의 전후반 서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독자적 주제를 드러낸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작품의

당대 규범과 합쳐지며 올바른 비판내지 계도로 정당화된 것이다.

의양과의 결연 이후 이어지는 무숙이의 몰락 과정이 반복되며 더욱 심화된 이유는 향유자들의 질투로 인한 정치 욕구를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기층에 있는 기본적인 규범을 기준으로 한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어서이다. 가십은 기본적으로 ‘비공식적인 여론 전달 방법’이지만 이를 통해 “집단의 규범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강화시키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니콜라스 디폰조 외 2008, 37~38)” 가십대상을 비난하는 근거로 집단의 특정 규범을 내세우면서 그 규범자체를 사회 집단 속에서 강조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계우사>의 독자들은 장안부자였던 무숙이의 몰락과정을 보면서 향락에 빠져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논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교육적 기능은 그 대상이 주변에 있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다<sup>18</sup>. 무숙이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향유자들은 그의 부에 대해서는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한편 그의 몰락은 당대의 가치규범 하에서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하지만 가십의 향유자들이 내세우는 규범적 성격은 속이기 구조의 주체가 무숙이의 ‘공범’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완전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박일용은 “기생 의양이가 무숙이로 하여금 용전여수하던 습관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무숙이의 친구들과 공모를 하여 무숙이를 패가망신”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숙이의 색의 탐닉과 낭비벽을 경계하기 위한 교훈적 시각을 내세우기 위해서”이지만, 그를 개과시키는 주체가 “무숙과 삼계 주색잡기를 즐기던 친구, 또는 자신의 색을 매개로 하여 무숙의 타락을 직접 이끌어낸 기생 의량”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일용 2002, 7~8)

내용에 대한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판소리체’가 가진 서술적 특징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18. “규범에 대한 의사소통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나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혹은 정치적 유명인사(말초적 가십)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십은 도덕적 성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최혜진 2009, 37)

이는 사회 규범에 따른 계도 과정을 그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진지한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서술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계우사〉를 보면 무숙이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잡놈”의 짓을 할 때에도, 그리고 몰락하여 의양에게 모욕을 받는 와중에도 서사 전반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결코 무겁지 않다. 서사 전반에 드러나는 진지성의 결여는 주인공인 무숙이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에서까지 이어진다.

(1) 무숙니 기가 막켜 날과 죽마교우로 형제갓치 지닌 붓의 집을 가라  
 흥니 스츠불피니 스환을 웃지 흥여냐 오를게능, 너 스라 쓸 디 잇나  
 주글 마음 각심하고 디답흔 연후의, 디문 밧 썩 나서 ” 김선달 집  
 가라 흥니 ” 게 무슨 망신인고, 쥬먼니을 톡 ” 썩러 품판 돈을 너여  
 비송덩니 스셔 들고 ‘이번 심부름 단여 가서 의양니을 결단넝고 비송  
 너 먹고 쥬그리라.’(460)

(2) “오날 김별감니 날과 스즈 괴약하고 오날밤의 오옹시니 잡술 상과  
 츠을 맞치 디렁하고 방의 불을 한온니 상반하게 점화하라.” 무숙이  
 괴그 막켜 ‘니제는 너 죽넝다.’ 비송을 썩셔 들고 머그랴다 (462)

(3) “중놈아 된 물 데여라.” 무숙니 더욱 기가 막켜, “인제는 못 죽넝  
 놈은 빅정놈의 아덜니라.” 미송가로 도로 너여 물의 푸러들고 한운임  
 게 축원흥여, “명천흥 한운임 아모리 노천인덜 이런 물의지스 남의  
 계집 썩넝 놈과 빅은망덕 간부 흥 연 천벌을 안쥬신니 중부의 곡흥  
 심스 오득키 분흥와야 음약치스 흥오릿가.” 머그랴고 입의 된니(464)

위의 인용문은 의양에게 모욕을 받을 때마다 죽음을 시도하는 무숙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무숙이는 (1) 종의 신분으로 그의 옛 친구인 김별감 집에 심부름을 갈 때, (2) 의양과 같이 살려고 오는 친구 김별감을 맞이하는 준비를 할 때, (3) 의양이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를 갖기 전 사용할 뒷물을 꿇여야 할 때 죽음을 시도한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무숙이가 받는 모욕은 더욱 심해지지만 그가 죽음을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비속어와 농담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서사에서 주인공의 비참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내용의 유희성은 더 강해지는데, 그 이유는 무속어의 비극이 사실이 아니라 의양의 속임으로 인한 거짓 상황이기 때문이다. 속이기 구조는 〈배비장전〉이나 〈이춘풍전〉 등 다른 판소리계 소설 속에서도 등장하는데, 〈계우사〉에서도 속이기 구조가 차용되면서 주인공의 ‘비극’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 즉 주인공 무속이를 제외한 향유자와 주변인물간의 공모는 죽음으로까지 이를 수 있었던 그의 비극적 상황조차 비극으로 보지 않게 한다.

〈계우사〉의 결말은 타인의 불행마저도 가벼운 재담 속의 소재가 되는 가십의 성격과도 닮아있다. 가십은 대상에 대한 긍·부정적 태도 속에서 그와 관련한 규범적 판단이 들어있는 말이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듣는 이들에게 재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에 대해 니콜라스 디폰조는 “가십은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사람들은 타인의 작은 실수나 과오에 대해 말하면서 웃고 좋아한다. 남의 사생활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즐기는 것이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버린다.”라는 설명으로 가십이 가진 재미의 기능을 지적한다.(니콜라스 디폰조 2008, 36) 무속이에 대한 서사인 〈계우사〉 또한 대리만족과 질투, 가치판단과 정치가 뒤섞여 있지만 서사를 추동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남의 삶 자체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재미에 있다. 당시 한 명쯤은 있을 법한 왁짜의 부와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타인의 삶에 왁짜왁짜 하는 재미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V. 결론

판소리는 “무당들이 굿할 때 부르는 서사무가나 판놀음에서 놀던 우스개 재담이나 이야기꾼의 한 형태로서 소설책 따위를 읽어주던 강독사가 강창사로 발전하여” 되었다고 한다(김광옥 1989, 74). 판소리는 그 생성 때부터

구비적 속성을 바탕으로 전승/연행되던 문화예술로 “그 사설 속에 일정한 의미군을 내재시킴은 물론 사설의 제작과 구연을 통하여 의미를 창출시키고 전파시키던, 담론 방식의 한 특수형”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범 1986, 88).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담론의 연행 방식은 공식적 담론뿐 아니라 비공식적 담론을 담는 문화예술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sup>19</sup>.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등과 같은 전승판소리의 경우 신재효의 정리 이후 각각 ‘효’, ‘열’, ‘충’, 등의 공식적 담론의 연행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판소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비공식적 담론의 전달도구였다. 그 중 대표적으로 〈춘향가〉의 경우를 보면 ‘열’이라는 공식적 이데올로기 외에 춘향과 변사또와의 대립, 그리고 이도령에 대한 풍자적 인식을 통해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수탈을 고발하고 양반계층을 비판’하는 비공식적 담론이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판소리는 형성기 때부터 기본 향유층인 민중의 공론 형성의 도구로 사용되어온 장르이다. 그러나 19세기가 되면서 판소리는 양반, 중인층에까지 향유층을 넓혀가기 시작했고, 그 공론의 대상이나 내용 자체에 변모를 꾀하게 된다. 창자와 향유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판소리 사설이기에 그 향유자가 가진 시대적, 계층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김광옥 1989, 80). 〈계우사〉의 바탕이 된 〈무속이타령〉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발생한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무속이타령〉은 1860년경에 형성된 작품으로 19세기 들어 부각된 중인

- 
19. 판소리는 조보(朝報)나 방(榜)처럼 문자로 이루어진 공식적 도구가 없었던 민중들에게 자신들의 공식적 담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김광옥 1989, 4~75 참고) 김영범에 따르면 “판소리꾼은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 고장의 정보를 전달하는 사회적인 뉴스의 의도적인 운반자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며 생활의 긴장을 푸는 오락적 수단인 판소리 공연을 통하여 판소리 관에 내재한 사회성과 민중의 집합의식을 확산시켜 나갔을 것이다.”(김영범 1986, 75.)
20. 본고에서는 〈무속이타령〉을 판소리로, 〈계우사〉는 그 판소리가 소설화된 결과로 보았다. 하지만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계우사〉는 작품에 남은 판소리적 서술특징(〈무속이타령〉에서 영향을 받은 특징) 또한 함께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부호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사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전승판소리와는 그 주제나 서술 태도에 있어서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속이타령〉,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판소리계소설 〈계우사〉가 가지고 있는 비공식적 담론방식, 즉 가십으로서의 요소와도 관련이 있다.

〈계우사〉의 주인공 무속이는 전형적인 19세기 왈짜이자 당대의 유명인사로, 모두가 원하던 제일 기생 의양이와 함께 사치를 부리다가 결국 패가하는 인물이다. 주인공 무속이의 존재는 주변인물과 서사를 향유하는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계우사〉에서의 부정적 태도는 가십의 대상에 대한 부정적/경멸적 태도와도 맞닿아 있다. 〈계우사〉는 다른 판소리계 소설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병렬적 나열과, 상황의 반복 제시 등의 표현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계우사〉의 두 부분, 무속이의 부와 패가에 대한 부분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처럼 서술을 통한 부와 패가에 대한 과장은 해당 주제에 대한 향유층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계우사〉의 향유자는 장안부자 무속이와 관련한 서사를 통해 자신들이 누리지 못했던 부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질투의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공동체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하여 그를 비판하고 그의 추락을 서사화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계우사〉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삶에 대한 '흥미본위로서의 가십'을 대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 그렇기에 무속에 대한 서사적 처분 또한 '속이기 구조'라는 기존 판소리의 서사적 장치들을 차용함으로써 담론의 진지성이 결여된 일종의 유희로서 다가가게 된다.

〈계우사〉의 전후반부를 이루고 있는 그의 부와 패가에 대한 이야기는 판소리적 표현양식을 힘입어 당대 도시문화를 이루고 있는 중인부호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하나의 가십거리로 기능하고 있다. 〈계우사〉에서 보이는 '무속에 대한 가십'은 구비적 속성을 전제로 한 판소리 형식이 사회에서 공인되지 않은 담론의 매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게우사」 『원광대학교 박순호 교수 소장본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 1집, 1985.
- 김종철 교수, 「게우사」, 『판소리 연구』 5, 판소리학회, 1994.
- 김광옥(1989), 『朝鮮後期 民衆公論에 관한 研究 : 판소리 談論을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범(1986), 「조선후기 판소리 담론과 민중집단의 집합의식」, 『한국학보』 12, 82-122쪽.
- 김영주(2010), 『19세기말 20세기 판소리 변모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종철(1978), 「「무숙이타령」(왈자타령) 연구」, 『한국학연구』 10, 62-101쪽.
- 김종철(1991), 「자료 해제 : <게우사>의 자료적 가치」, 『한국학보』 65, 일지사, 4254-4258쪽.
- 김종철(1996),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 창을 잃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 김준형(2000), 「<게우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27, 한국문학회, 77-100쪽.
- 남상윤(2002), 『실전 판소리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78쪽.
- 니콜라스 디폰조·프라산트 보르디아(2007), *Rumor psychology: Social and Organizational Approaches*, 『루머 심리학』, 신영환 옮김, 한국산업훈련연구소, 2008.
- 배선희(2002), 「<게우사>와 <이춘풍전> 대비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일용(2002), 「구성과 더듬형 사설 생성의 측면에서 본 판소리의 전승 문제- <배비장타령> <강릉매화타령> <게우사>의 예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4, 판소리학회, 1-22쪽.
- 박진아(2013), 「<게우사>의 형성과 문학사적 위상에 관한 고찰」, 『국학연구논총』 12, 태민국학연구원, 78-101쪽.
- 서종문(2009), 「소리판과 판소리 사설」, 『판소리 연구』 28, 판소리학회, 197-218쪽.
- 이수정(2010), 『세태소설 속 여성인물 형상 연구- <이춘풍전> <게우사> <옥단춘전>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태화(2005), 「조선후기 왈자 집단의 구성과 성격」, 『한국학연구』 22,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65-198쪽.

- 인권환(1996), 「실전 판소리 사설 연구-〈강릉매화타령〉, 〈무숙이타령〉, 〈옹고집타령〉을 중심으로-」, 『동양학』 2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69-108쪽.
- 조광국(2000), 「19세기 향락상에 대한 평·천민 여성의 자의식 구현의 한 양상-〈이춘풍전〉 〈무숙이타령〉 〈삼선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13-239쪽.
- 조지프 엡스타인 (2011), *Gossip : feasible, uncheckable, deeply damning*, 『성난 초콜릿 : 그럴듯하면서 확인할 수 없고 매우 가혹한 가십의 문화·사회사』, 박인용 옮김, 함께읽는책, 2013.
- 최원오(1994), 「〈무숙이타령〉의 형성에 대한 고찰-장편가사와 관련하여」, 『판소리연구』 5, 판소리학회, 299-322쪽.
- 최원오(2003), 「조선 후기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하층여성의 삶과 그 이념화의 수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115-160쪽.
- 최정현(2018), 「공동체 가십(gossip)의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3), 329-361쪽.
- 최혜진(2009), 「〈계우사〉의 작품 구조와 향유층의 욕망 실현」,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94-132쪽.
- 유귀영(2011), 「〈계우사〉에 나타난 ‘가정’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 『어문론총』 54, 한국문학언어학회, 39-68쪽.
- 클라우스 틸레 도르만(1995), 『수다의 매력』, 전옥례 옮김, 새로운 사람들, 1996.
- 한창훈(2009), 「판소리 문학사에 있어서 〈계우사〉의 위상」, 『국어문학』 46, 국어문학회, 38-49쪽.
- 허정혜·장영혜(2015), 「SNS에서의 가십동기, 가십의향 및 구매의도와와의 관계 : 메시지 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마케팅논집』 23(4), 1-24쪽.

## 국문초록

가십은 그 내용과 형식이 기본적으로 비공식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문서화되기 보다는 판소리와 같은 구비적 성격이 강한 문화예술을 통해 공개적으로 연행되곤 한다. 〈계우사〉는 19세기의 판소리 〈무속이타령〉이 소설화된 작품으로 ‘가십’으로서 연행되던 판소리적 표현양식을 보여준다. 〈계우사〉의 주인공 무속이는 전형적인 19세기 왈짜이자 당대의 유명인사이다. 주인공 무속이의 존재는 주변인물과 서사를 향유하는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부정적 평가를 받는 존재라는 점에서 가십의 대상과 상통하다. 또한 〈계우사〉는 나열, 반복을 통해 부와 추락을 과장하고 있다. 이는 해당 주제에 대한 향유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계우사〉의 향유자는 장안부자 무속이와 관련한 서사를 통해 자신들이 누리지 못했던 부에 대한 대리만족과 질투의 태도를 규범을 통한 비판과 서사를 통한 징치를 통해 드러낸다. 하지만 〈계우사〉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삶에 대한 호기심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무속이의 비극도 ‘속이기 구조’라는 판소리적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진지성이 결여된 재미로 다가가게 된다.

〈계우사〉에서 무속이의 부와 패가에 대한 이야기는 판소리적 표현양식을 힘입어 당대 도시문화를 이루고 있는 중인부호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하나의 가십거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구비적 속성을 전제로 한 판소리 형식이 비공식적 담론인 가십의 매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키워드:** 계우사, 가십, 무속이타령, 왈짜타령, 19세기, 판소리, 실전판소리

## Abstract

### A Study on the Gossip of the 19th Pansory : An Analysis of ‘Gewusa’

Heain Park(Namseoul University)

Gossip has an informal nature of content and form. So, rather than being documented, gossip can be spread publicly through a cultural art with a strong old-fashioned personality like pansori. <Gewusa> is a novelized version of the 19th-century pansori <Musugi-tayeong>, which shows pansori performed as a form of gossip. The character ‘Musugi’ in <Gewusa> is a typical 19th-century ‘Walja’ and is a celebrity of the day. 333 is the object of attention to those who enjoy the surrounding people and the narrative, but a negative connotation, which is analogous to gossip, surrounds it. <Gewusa> exaggerates wealth and falls through listing and repetition. This reflects writer/reader(享有者) interest in wealth and bankruptcy. The writer/reader(享有者) of <Gewusa> tells the story of a rich man, Musuk who is rich in the ‘Zhang An’, and reveals a sense of vicarious satisfaction and jealousy in the wealth that they did not have. This leads to criticism using norms and a sign through the narrative. <Gewusa> is predicated on curiosity about other people’s lives. So, ‘Musugi’s’ tragedy also lacks seriousness because of the factual mechanism of deception. In <Gewusa> the story of the rich and the bankruptcy of ‘Musugi’ become the gossip of the working class because of the platonic expression. These stori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show that the pansori format can be an informal discourse medium for gossip.

**Keywords:** Gewusa, Gossip, Musugi-taryeong, Walja-taryeong, 19th, Pansory, Lost pansori

Received : 9 October 2019
Reviewed: 21 October 2019
Accepted : 22 October 2019